

# 코로나로 택시 전액관리제 ‘유명무실’

지난해부터 의무화됐지만 도내 시행 업체 ‘0’  
 택시업계 재정 악화... 도에 ‘시행 유예’ 요청  
 도, 7월부터 법인택시회사 전수조사 착수키로

법인택시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이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형식인 ‘전액관리제’가 의무화됐지만 코로나19로 택시업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월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사납금 제도는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이 하루에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남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다. 이 방

식은 기사가 일정액을 제외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 영업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반면, 사납금 초과 달성을 위해 무리한 운행을 하거나 요금수익이 사납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사 개인이 모자란 부분을 사비로 채워넣어야 하는 등 택시기사 처우 악화의 주 원인으로 꼽혀 왔다.

반면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 형식의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이같은 내용을 담

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지난해 1월부터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재 제주지역 법인택시업체 34개소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 중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액관리제를 시행 중이라고 도에 보고한 일부 택시업체들조차 임금협정서를 살펴보면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택시업체가 기존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도 차원의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경영난을 동시에 겪으면서 어려움을 호소, 전액관리제 유예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업체 대표와 노동조합은 양측 합의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전액관리제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왔다. 이에 도는 택시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전액관리제 미시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행하지 않고 유예해 왔다.

다만 시행일이 1년 이상 지난 데다 국토부 측으로부터 유보 불가 입장이 전해져 오는 등 더 이상 유예가 어려워지면서 제주도는 내달 1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여 제도 안착에 나설 방침이다. 택시업계는 6월 중 전액관리제에 적합한 임금협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전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법인택시업체로부터 임금협정서를 제출받아 7월부터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 등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한라산 등반객 울리는 바가지 택시 미터기로 5000원대... 현장선 8000원 요구 택시기사 “빈차로 운행해 어쩔 수 없어”

한라산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대 승강장이 마련됐지만, 이를 악용해 택시 기사들이 등반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3월 제주도청 홈페이지 관광블로그 민원접수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관광객 A씨는 지난달 28일 관음사 코스로 하산한 후 국제대 승강장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요금은 5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작 해당 택시사는 이보다 높은 8000원을 요구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기사가 요구한 요금을 지불했다.

A씨는 “당시 택시기사는 8000원을 내지 못할거면 다른 택시를 타라고 했다. 사실상 탐승거부가 아니냐”면서 “심지어 택시기사는 다른 택시 기사에 전화를 걸어 ‘관음사에서 승강장까지 5000원이 나온다고 한다. 열받게’라고 말하며 난폭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일 택시를 따로 섭외해 관음사에서 국제대 승강장까지 미터기를 켜 상태로 운행하니 요금은 55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이날 국제대 승강장에서 만

난 등산객 5명에게 택시요금을 문의한 결과 4명은 8000원, 1명은 7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택시기사에게 요금이 높은 이유를 물었더니 “시내와 멀어 택시들이 잘 오지 않고 풀을 불러도 오지 않는다”며 “빈차인 채로 관음사코스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받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택시운송수송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3회 이상 어기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난다.

김형남 제주도 택시행정팀장은 “A씨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당시 운행했던 택시 기사를 상대로 의견진술 절차를 밟고 있다”며 “택시기사들에게 미터기로 요금을 받으라는 계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향후 자치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

#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확대를” 제2공항 저지도민회의 논평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일 논평을 내고 “LH 부동산 특혜를 받은 제2공항 핵심 담당자들인 국토부 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직원이 사전 정보를 유출,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졌다”며 “최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와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 자료 조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 농업법인 등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근의 토지를 싸쓸이한 정황이 두드러진 인연사에 의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3일 제주시 오현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올해 수능 첫 모의고사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상국기자

# 어제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도내 재학생·졸업생 등 7100여명 대상 실시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편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모평)가 3일 실시됐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평에 지원한 제주 응시생은 30개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7128명이며, 재학생 가운데 9명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및 자율격리로 온라인으로 응시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한 이번 모평은 11월 18일 예정된 수능과 마찬가지로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에 응시하고 선택과목 1개를 골라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번 모평은 국어, 수학의 공통과목이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EBS 연계

문항이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돼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평가됐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선택 과목별 유불리에 매몰돼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공통과목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국 2062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314개 지정학원에 동시에 실시된 이번 모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2899명으로, 재학생이 86.1%인 41만5794명, 졸업생 등은 13.9%인 6만7105명이다. 오은지기자

# 동물테마파크 대표·前 선흥2리장 기소 “사업 편의 봐달라”며 이장에 금품 제공한 혐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이장에게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다뤄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제주시 조천읍 선흥2리장 A(51)씨를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주)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 서모(42·여)씨와 사내이사인 또 다른 서모(50)씨도 배임중재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선흥2리 마을회 이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28일 마을회관 근처에서 대표의 지시를 받은 서씨로부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공문과 개발사업 반대 1만인 서명지를 제주도 전달하

는 등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한 인물이었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4월 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800만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2회에 걸쳐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도 서씨 등에게 대납하게 했다.

A씨는 받은 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사실을 숨겨왔던 혐의도 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2007년 1월 19일 제주도로부터 시행 승인을 받은 뒤 개발사업이 진행됐지만, 공사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2011년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서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난 2016년 12월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인수하면서 개발사업이 재개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조경 · 원예 · 화훼 인테리어 · 건축 · 토목용**

**화산석(송이)/붉은색, 흑색**  
 중국산 10kg 단위포장(중립 5~10mm), 대립 10~20mm)

**백지갈, 회색지갈/오색지갈(어항, 인테리어용)**  
 중국산 10kg 단위포장(20~30mm, 30~50mm)/(5~10mm)

**마사토**  
 국산 20kg 단위포장(소립 3~5mm, 중립 5~10mm)

**바크(천원형 소나무 바크, 조경용 멀칭재, 원예화분용)**  
 국산 35L 단위포장(중립, 대립)

**상토, 산아초, 휴가토, 녹소토, 적옥토, 퍼라이트**

**덕산조경원(소재, 소매)은 도내 최저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P : 010 - 5568 - 2936 · T/F : 064)744 - 8828  
 E-mail : duksanjo@naver.com · 주소 : 제주시 오광로 194(노평동)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 상당 녹음 선착순 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을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검구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안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안사거리)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한라제약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